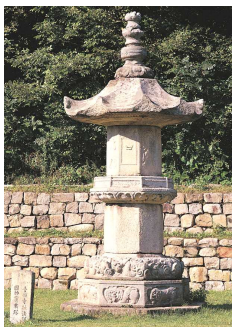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104호. 서쪽의 금당터 앞에 세워져 있는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2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형태이다. 아래 기단 옆면에는 사자상을 새기고 윗 기단 옆면에는 팔부중상을 2구씩 새겼다. 8부중 상은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으로 통일신라와 고려에 걸쳐 석탑의 기단에 많이 나타난다. 탑신에서는 1층 몸돌 각 면에 문짝 모양을 새겼으며, 지붕돌은 얇고 넓은 편으로 온화한 체감률을 보이고 있다. 지붕돌이 넓어진 것은 백제계 석탑 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옛 백제지역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다. 꼭대기에는 네모난 머리장식받침(露盤)이 남아 있고 그 위로 머리장식의 무게 중심을 고정하는 철제 찰주가 높이 솟아있다. 세부 조각에서 형식적인 면이 있으나 장중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고려 전기의 우수한 석탑이다.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

보물 제105호. 법인국사 탄문(坦文)의 사리를 모셔놓고 있다. 법인국사는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활약한 유명한 승려로, 광종 19년(968)에 왕사, 974년에 국사가 되었고, 그 이듬해 이 곳 보원사에서 입적하였다. 978년에 왕이 '법인(法印)'이라 시호를 내리고, '보승(寶乘)'이라는 사리탑의 이름을 내렸다. 기단부는 아래받침 돌을 8각으로 된 2개의 돌로 쌓았다. 밑돌에는 각 면마다 움푹하게 새긴 안상(眼象) 안에 사자 한 마리씩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였고, 윗돌에는 구름 속을 거니는 용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모서리마다 꽃이 새겨져 있다. 중간받침돌은 아무런 조각이 없는 8각의 배흘림기둥을 세웠으며, 윗받침 돌은 윗면에 수직으로 새긴 난간조각이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탑신의 몸돌은 8각이며 각 모서리를 기둥처럼 새기고, 앞·뒷면에는 자물쇠가 달린 문짝모양을 새겨두었다. 양쪽에는 불교의 법을 지켜주는 사천왕(四天王)을 두었으며, 나머지 2면에는 높은 관을 쓴 인물상이 서있다. 지붕돌은 넓고 두꺼운데, 밑으로는 목조건축에서와 같은 서까래가 표현되어 있고, 윗면은 가파른 경사를 표현하였다. 각 모서리 선은 뚜렷하며, 끝에는 꽃 조각을 하였으나 거의 남아있지 않다. 탑의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큼직한 연꽃이 조각된 복발 위로, 굽이 달려있는 3개의 보륜(寶輪)이 차례로 놓여 있다. 이 탑은 법인이 입적한 해인 975년과 탑비(보물 제106호)를 세운 978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8각의 기본양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몸돌에서 보이는 여러 무늬와 지붕돌의 귀꽃조각 등은 고려 전기의 시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

보물 제106호. 비문에 의하면, 법인국사(法印國師)는 광종 25년(974)에 국사가 되었고, 이듬해에 입적하였으며, 비는 경종 3년(978)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비받침인 귀부(龜趺)는 거북모양이나, 머리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모습으로, 목은 앞으로 빼고 콧수염은 뒤로 돌아 있으며 눈은 크게 튀어 나와 있다. 등 위에는 3단 받침을 하고 비를 얹었으며, 비머리는 네 귀퉁이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용을 새기고, 앞·뒷면에는 구름무늬를 조각하였다. 거대하고 웅장하나 조각기법이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다.

❁사찰순례 특별동참 보시자❁

김문자, 이수경, 천옥희, 변미자
이동하, 이성부, 김 순, 송성자
중림사회복지관(사과)
단우물어린이집(캔커피)
신당5동어린이집(빵, 음료)

정각원 토요법회 안내

・11월 7일 - 정각원장 해주스님
<생활법문>

・11월 14일 - 교법사 진우스님
<진언수행입문>

많은 동참 바랍니다_()_

정각원 토요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0월 31일 제308호(週刊)

'가을맞이 사찰순례'

- 일 시 : 불기2559('15)년 10월 31일(토) 08:00~18:30
- 순례지 : 충남 서산 간월암, 서산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 인 솔 : 정각원 교법사 진우스님 정각

<사찰순례 일정>

시 간	내 용	장 소
07:50	버스 탑승 완료	정각원 앞
08:00~10:20 (140분)	정각원 출발→서산 마애삼존불	차량 이동
10:20~11:10 (50분)	서산 마애삼존불 참배	서산 마애삼존불
11:10~11:20 (10분)	서산 마애삼존불→보원사지	차량 이동
11:20~12:10 (50분)	보원사지 참배	보원사지
12:10~13:20 (70분)	보원사지→간월암	차량 이동
13:20~14:30 (70분)	점심공양 및 자율참배	간월암 공양실
14:30~16:00 (90분)	방생기도	간월암
16:00~18:30 (150분)	간월암→정각원	차량 이동
18:30	사찰순례 회향	정각원 앞

※ 점심공양은 차량별(40명)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비상연락망>

천옥희 (신도회 총무)	010-5447-1410
이민기 (정각원 팀원)	010-6281-1135
김신애 (정각원 팀원)	010-8551-6056
김관용 (정각원 조교)	010-5035-9492
정이담 (정각원 조교)	010-6877-5050

간월암 종무소	041-668-6624
서산 마애불 관리소	041-660-2538
보원사 종무소	041-663-7743

※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동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월암 看月庵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에 있는 작은 암자. 전언에 의하면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을 보고 홀연히 깨쳤다고 하여 암자 이름을 간월암이라 하고 섬 이름을 간월도(看月島)라 하였다고 한다.

1530년(중종 25) 찬술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간월도만 언급되어 있고 간월암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조선 후기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엽에 폐사되었는데 1914년 승려 만공(滿空)이 다시 창건하였다.

간월암 북동쪽으로 간월호가 있으며 남쪽은 천수만과 연결된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육지도 되고 섬도 되는 주변 경관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관음전과 요사채, 산신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음전에는 용이 되어 의상대사와 부석사를 지켰다는 선묘와 흡사한 형태의 불화가 모셔져 있는데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무사귀환의 염원이 담겨진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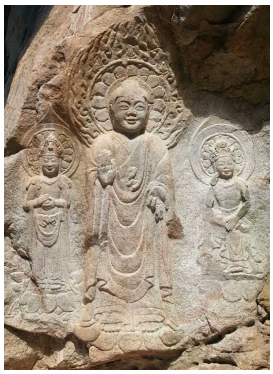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전체높이가 42cm에 달하는 소규모의 보살상으로 보살상의 밑부분에는 복장공(腹藏孔)이 마련되었으나 조성당시의 복장기는 남아있지 않아 조성연대와 존상의 명칭, 봉안사찰 등을 알 수 없지만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삼존불상의 협시보살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적으로 개금이 약간 벗겨진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신체에 비하여 두부(頭部)가 다소 큰 편으로,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높고 길쭉한 보계가 표현되었으며 이마부분에는 빗으로 빗은 듯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나타난다. 보발은 귀의 중간부분을 감싸고 흘러내리다가 어깨 위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서 팔뚝 위로 흘러내렸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깝지만 턱 부분에 살이 올라 부드러워 보이며 미간에는 백호가 선명하고, 활형의 가는 눈썹과 약간 위로 치켜뜬 반쯤 감은 눈, 오똑한 콧날, 꾹 다문 얇은 입술 등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신체는 안정감 있고 균형이 잘 잡혀있는 편으로, 어깨 폭이 넓지 않아 아담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며 결가부좌한 무릎 폭도 적당하여 안정감을 주며 양 어깨에는 법의가 걸쳐져 있는데, 조선후기 보살상에게 흔히 볼 수 있듯이 천의가 아닌 법의를 걸치고 있다. 법의는 목 뒷부분이 약간 접혀있으며 왼쪽의 법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가리고 어깨에서부터 무릎부분까지 내려오면서 무릎 위에 놓인 왼손을 손목부분까지 완전히 덮고 있으며, 오른쪽 법의는 어깨를 덮은 뒤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하여 배 부근으로 내려가 왼쪽에서 내려온 법의 안쪽으로 여며진 모습으로 이와 같은 착의법은 넓게 트인 가슴, 수평의 군의와 함께 조선후기 불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첫째와 셋째손가락을 마주잡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서 첫째와 셋째손가락을 마주잡고 있는데, 두 손 모두 별도로 제작되었다. 한편 자세는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발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제84호.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층암절벽에 거대한 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 흔히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이 마애불은 암벽을 조금 파고 들어가 불상을 조각하여 형성되었다.

연꽃잎을 새긴 대좌 위에 서 있는 여래입상은 살이 많이 오른 얼굴에 반원형의 눈썹, 살구씨 모양의 눈, 얕고 넓은 코, 미소를 띤 입을 표현하였는데, 전체 얼굴 윤곽이 둥글고 풍만하여 백제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옷은 두꺼워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며, 앞면에 U자형 주름이 반복되어 있다. 둥근 머리광배 중심에는 연꽃을 새기고, 그 둘레에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는 오른쪽의 보살입상은 얼굴에 본존과 같이 살이 올라 있는데, 눈과 입을 통하여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천의를 걸치지 않은 상체는 목걸이만 장식하고 있고, 하체의 치마는 발등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왼쪽의 반가상 역시 만면에 미소를 띤 둥글고 살찐 얼굴이다. 두 팔은 크게 손상을 입었으나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오른쪽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볼 수 있다. 반가상이 조각된 이례적인 이 삼존상은 『법화경』에 나오는 석가와 미륵, 제화갈라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불의 묵직하면서 당당한 체구와 둥근 맛이 감도는 윤곽선, 보살상의 세련된 조형 감각,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쾌활한 인상 등에서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곳은 백제 때 중국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중심지인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므로, 이 마애여래삼존상은 당시의 활발했던 중국과의 문화교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보원사 普願寺

조선시대에는 '강당사(講堂寺)'라고도 불렸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 이래의 고찰(古刹)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지(寺誌)나 사적기(事蹟記) 등의 문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창건연대는 이 사지(寺址)에서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이 6C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마 6C중엽에 창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서산마애삼존불이 백제의 대표적 불교조각이라는 점, 당시 서산 지역이 중국과의 중요한 교통로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이 사찰의 사지나 사적기는 전하지 않지만 최치원이 남긴 「법장화상전(法藏和尙傳)」이나 현재 사지에 남아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法印國師寶乘塔碑)」의 명문을 통해서 그 종파나 사세(寺勢)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법장화상전(法藏和尙傳)」에 웅주(熊州) 가야협(伽耶峽)의 보원사는 의상(義湘)을 계승한 화엄십사(華嚴十寺)중의 하나라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찰의 종파가 화엄종임을 알 수 있다.

당시를 대표하던 탄문이 보원사에서 머물렀고 975년 국사(國師)로 책봉된 후 이 사찰에 살다가 입적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고려 초기에 이 사찰의 사세(寺勢)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찰은 아마도 화엄종의 쇠퇴와 함께 무신집권기인 고려 후반기 이후 점차 사세가 기울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초기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불우(佛宇)조에 간략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때까지도 이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광해군 때 편찬된 『호산록(湖山錄)』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폐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에 실시된 지표조사에 의해 가람배치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석교(石橋)를 지나 중문(中門), 석등(石燈), 석탑(石塔), 금당(金堂), 강당(講堂)과 승탑(僧塔)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금당과 강당 좌우로 회랑(回廊)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금동여래입상(국립부여박물관 소장)과 고려시대에 제작된 철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이 있으며, 현재 사지에는 석조와 당간지주, 5층 석탑, 법인국사탑과 탑비 등이 남아 있다.

<서산 보원사지 석조>

보물 제102호. 석조는 승려들이 물을 담아 쓰던 돌그릇으로, 화강석의 통 돌을 파서 만든 직사각형 모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 형식을 보인다. 규모가 거대하며 표면에 장식이 없어 장중해 보인다. 내부 각 면에도 조각한 흔적이 없으며, 밑바닥 면은 평평하고 한쪽에 약 8㎝정도의 원형 배수구가 있을 뿐이다. 안쪽과 위쪽만 정교하게 다듬고 바깥쪽에는 거칠게 다듬은 자국이 그냥 남아 있어 땅에 묻어두고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 조각수법이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약 4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 이를 통해 당시 사찰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다.

<서산 보원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03호. 절에서는 기도나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 절 입구에 당(幢)이라는 깃발을 달아두는데, 이 깃발을 달아두는 장대를 당간(幢竿)이라 하며, 당간을 양쪽에서 지탱해 주는 두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절터 동쪽에 있으며, 70㎝정도 간격을 두고 마주 서 있다. 안쪽 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바깥 면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넓은 띠를 새겼다. 기둥의 윗부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모를 둥글게 깎아 놓은 형태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폭이 약간 넓어져 안정감이 느껴진다. 지주의 마주보는 안쪽 꼭대기에 네모난 홈을 중앙에 팠고, 아래 부분에도 네모난 구멍을 뚫어 당간을 고정하도록 하였다. 당간을 받치던 받침돌은 직사각형으로 2단이며, 윗면의 중앙에는 당간을 끼우기 위한 둥근 구멍이 파여 있다. 양식과 조각수법이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발달된 모습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보인다.